새 정부 지역균형발전 정책 세미나 개최

전북연구원, 도 15대 공약 중 주요 사업 이행을 위한 대응 방안 등 논의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전북도청에서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전북도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전북의 15대 공약 중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한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박기관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 그리고 전북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활성화를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라면서 "조만간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균특회계 개편, 관련 법 정비는 물론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율권 확대 시범지구 등이 새롭게 추진될 예정임에 따라 지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에서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배후거점 조성, 스마트 첨단도시 컨셉의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 동부권 중심의 농생명 힐링치유벨트 조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전북대학교 주상현 교수, 전주대학교 최영기 교수, 산업연구원 최윤기 박사, 국토연구원 서연미 박사, 전북도 송금현 정책기획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은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의 발전을 앞당기고 새만금 개발 파급효과를 전북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전북의 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도록 전북의 역사문화, 생태환경 등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혁신과 특성 있는 발전으로 자립형 지방화 촉진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을 이뤄야 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전북 균형발전을 위한 15대 지역공약이 충실히 수행돼 전북발전 견인을 기대하며, 전북도는 신산업분야 육성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전북 재도약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남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15대 전북공약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전북의 특화발전을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에 대한 논리개발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멸종위기 동물 '자연의 품으로'

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인근에 방생 행사 진행

전북도가 30일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인근에서 전북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함께,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하늘다람쥐의 자연 복귀 행사를 진행했다.

'하늘다람쥐는 청설모과 포유류로 천연기념물 제328호인 동시에 환경부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Ⅱ급으로도 지정돼 있다.

오래된 숲속에서 나무구멍을 보금자리 삼아 제주를 제외한 전국 산악지대에 서식하는 야행성 동물이다.

이번에 자연복귀한 하늘다람쥐는 지난 4월 진안군 주천면 인근에서 구조됐으며, 당시 갓 태어나 눈도 뜨지 못한 상태였으나, 그간 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돌봄으로 회복해 발견된 인근의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다.

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2006년 전북도와 전북대간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 개소한 이후에 부상당한 야생동물 11,318마리를 구조·치료하고 4,163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다.

구조한 주요 동물 중에서는 담비, 독수리, 하늘다람쥐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동물 3,676마리도 포함돼 있다.

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는 조난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 외에도 야생동물의 질병을 조사해 생존의 문제점 파악과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함으로써 자연 생태계 보호와 인간과 동물의 효율적 공존환경 조성에 두루 힘쓰고 있다. /유호상 기자

도,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에 팔 걷어 부쳐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개최… 중앙부처·기업체 등과 집중 논의

전북도가 30일 무주 덕유산리조트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도민 일상회복을 지원하고자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현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과 함께 지역의 규제 애로 현장을 방문하고, 해소방안 및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그간 시·군과 함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규제애로 중 시급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5건의 현장협의회 논의 과제를 선정·건의했다.

건의 과제는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완화, △농어촌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 △지방 소도시의 일반택시 차령 및 차량충당 연한 연장, △산업단지 부대시설의 전시·판매 품목범위 확대,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등이다.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완화는 객실별 취사시설 또는 공동취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등급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기간 연장은 봄철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계절근로자가 3월부터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택시의 차령 및 차량충당연한 연장은 차량 안정성과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고, 산업단지 부대시설 범위확대 및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은 산업단지 조성목적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추진

전북도가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전국대비 17.6%, 926호로 전국 3위를 점유하고 있다.

올해 지정 확대를 통해 총 누적 1,080호 달성 계획으로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5년까지 1,500호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사업'을 통한 연 2회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 농장에 대해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정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중 우수한 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정된 모든 농장에는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를 부여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선정

감사관실 이은지 주무관

전북도 감사관실 이은지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됐다.

도는 5월에는 민간, 공공기관, 부서간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해 성과를 달성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협업 주인공'을 선정했다.

이은지 주무관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관실의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몸소 소통과 공감의 자세로 협업을 실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이 주무관은 회계 관련 사전 컨설팅 지원 등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회계사고 발생 사전 방지 노력, 수범사례 발굴 및 개선사항 전파 등을 통해 전북도 회계업무 가이드 역할을 했다.

또한, 감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감사 활동 종합정보를 수집해 시상하는 자체감사평가에서 도 실국 및 시·군과의 협력 관계 유지를 통해 전북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은지 주무관은 "저희 팀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되어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협업해 회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호상 기자

예수병원서, 전북도 보조기기센터 운영

전북도가 올해부터 예수병원에서 '전북도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함에따라, 병원 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장애인 재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학적 분석을 토대로 개인별 최적화된 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장애인이 병원 등에서 진단을 받은 후, 다시 전북도 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해 보조기기 지원 상담을 받는 등 이중절차로 인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함이 가중돼 왔다.

앞으로는 예수병원에서 의료적 진단을 받은 후, 예수병원에 위치한 도 보조기기센터로 곧바로 상담이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의 복지만족도를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도 보조기기센터는 2억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사업비는 보조기기서비스사후관리, 보조기기 대여 및 수리, 보완 및 재사용사업 등에 사용된다. /유호상 기자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내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양옥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대회제전위원장
손명엽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포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 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의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287-6678, FAX: 287-6676